

국민의 소리

국민권익위원회



2023년 2월 4주차 주간동향 (2.20.~2.26.)

[2023.3.2.(목), 제705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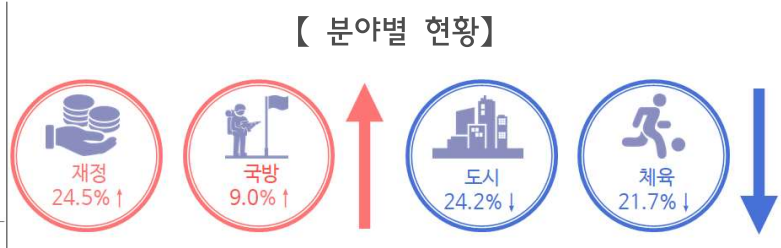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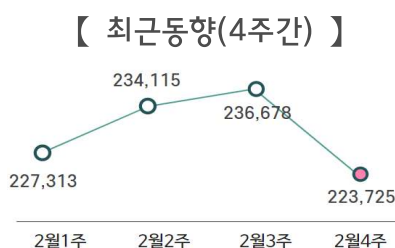
이슈 키워드

온라인 여론			민원		
순위	키워드	언급량	키워드	민원건수	유형
1	인공지능	42,217	불법 주정차	59,722	생활불편
2	물가	24,021	장애인 전용구역(불법 주정차)	11,144	생활불편
3	탄도미사일	7,630	친환경차 충전구역(불법 주정차)	4,658	생활불편
4	출산율	6,582	주정차 장소(주정차단속 요구)	2,963	생활불편
5	인구절벽	5,963	버스정류소 불법(불법 주·정차)	2,854	생활불편
6	노랑봉투법	5,035	교통법규 위반차량(이륜차 등)	2,452	생활불편
7	무역적자	3,533	과태료부과 요청(신호위반 등)	2,437	생활불편
8	건설노조	2,734	위례 주민(위례신사선 조기개통 요구)	1,074	지역이슈
9	노동개혁	2,380	인천 서구(GTX역 선정 요구)	1,068	지역이슈
10	대북제재	1,055	방향지시등 미점등(위반 신고)	981	생활불편

* 민원 : 국민신문고,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·반복 민원 포함(2.20.~2.26.) / 온라인 여론 :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(2.16~2.22.)

민원 동향

- 2월 4주차 민원은 223,725건(일평균 31,961건)으로 지난주(236,678건) 대비 5.5% 감소 ※ 안전신문고(52.6%), 국민신문고(29.2%), 서울 등(18.2%)
-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북(6.5%), 전북(5.2%) 등 증가한 반면, 대구(10.3%), 광주(8.6%) 등 감소
- 분야별로는 오피스텔 DSR 문제 개선 요구, 군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등 재정 및 국방 순으로 증가



주요 민원

□ 마라도 길고양이 외부 반출 반대 (268건)

○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번식을 앞두고 보호를 위해 27일부터 마라도의 길고양이를 반출하기로 결정

- 마라도의 고양이 반출을 반대하며, 현재 치료를 위해 반출된 고양이 4마리에 대해서도 마라도로 돌려보내도록 요구

* 전 세계 희귀종 뿔쇠오리 번식 앞두고 협의, 반출 고양이 세계유산본부가 직접 보호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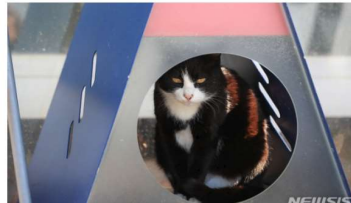


- 마라도에서 구조를 이유로 감금 중인 고양이들을 다시 그들의 집인 마라도로 보내주세요. 차라리 중성화 수술에 도움을 주시던지요. 그저 뺏아서 가두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뭐가 달라집니까? 제발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주세요. (2.25, 제주특별자치시)
- 치료 끝난 고양이들을 다시 마라도로 보내주세요. 큰 질병도 없는데 갇혀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애들을 다시 마라도로 돌려보내세요. 그리고 보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세요. (2.23, 문화재청)

【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 관련 자료(출처 : 제주특별자치도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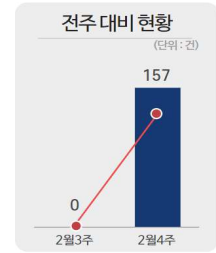
2023. 2. 24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세계유산본부 보도 자료 PRESS RELEASE 자연문화재과장 고희리 ☎ 710-6970 통영(통영) : 원문 원문 사진 : 원문 원문 후속자료 : 없음 멸종위기 마라도 뿔쇠오리 보호 위해 27일부터 고양이 반출 ~ 관세에 따라 뿔쇠오리 번식 앞두고 협의, 반출 고양이 세계유산본부가 직접 보호 관리 ~ ○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양이 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 ○ 세계유산본부는 24일 동물보호단체 전국조직원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연합(대표 최이수)과 제주지역체인 혼다도망(대표 김은숙),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(센터장 윤영민교수), 도·행정시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뿔쇠오리 폐손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. ○ 이날 회의에서는 27일부터 야간에알과 집종감시를 통해 뿔쇠오리 보호에 나서는 한편 고양이 반출 작업을 개시하고, 우선적으로 길물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우선 반출하기로 결정했다.	○ 천연보호구역 마라도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, 습새 등 주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다. ○ 한편, 제주대 오홍식 교수팀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60~70마리로 추정했다.	○ “매년 마라도 뿔쇠오리 사체가 발견되는 가운데, 올해는 마라도내에서 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쇠오리 사체 4마리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발견했다” ○ “이번 고양이 반출은 멸종위기 종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필요 조치로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함께 멸종위기 동·식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” 고 말했다.
---	---	---

【 주요 언론보도 】

연합뉴스 마라도 생태계 위협하는 고양이...개체수 늘자 뿔쇠오리 생존위기 출판시간 2022-11-20 07:00 단한 생태계 침, 외래침입종에 취약...고양이-쥐, 주요 위협요인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통구스 들어왔다가 자생 통구스 감소 최정훈 교수 “근본적 해결책은 고양이 매리코 나오는 것”  <연합뉴스(2022.11.20.)>	The JoongAng 주민보다 많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 '길냥이'...섬밖으로 퇴출된다 입력 2023.02.28. 오후 2:35 수정 2023.02.28. 오후 2:48 고양이 구조팀이 포획 후 섬 밖으로  지난 24일 마라도에서 발견된 뿔쇠오리 사체. 사진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<중앙일보(2023.2.28.)>	NEWSIS 마라도 주민들 “식구 같은 고양이, 데려가면 다시 기를 래요” 입력 2023.02.27. 오후 4:15 수정 2023.02.27. 오후 4:19 기사내용 요약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서식 위협...마라도 길냥이 '추장'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3월1일부터 고양이 반출 계획  <뉴스시스(2023.2.27.)>
---	---	---

□ 수원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 (157건)

- 공사지연으로 통학로가 공사장을 가로지를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, 우회 할 경우 3분 거리를 20분 걸려 도착
- 안전한 도보길이 있는 임시도로를 개통하고, 임시 도로 폐쇄 이후에는 안전요원 배치 요구



- 기존 구시가지와 이어지는 쪽의 도로는 보상 및 공사지연으로 인해 27년 완공 예정이라 답변받았습니다. 공사장을 가로지를 경우 안전문제 상의 이슈가 있으며, 우회하여 등교 시 **도보 3분 내 도착할 거리를 20분 가까이 걸려 도착하게 됩니다.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합니다.**(2.21., 한국토지주택공사)
- 당수지구 인근 도로 계획이 모두 지연됨에 따라 출퇴근길 혼잡과 아이들의 등하교 시 불편함이 우려됩니다.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**왕복2차선 도로 및 안전한 도보길을 임시도로로 개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.** (2.21., 한국토지주택공사)

□ 대전 ○○초등학교 과밀 문제 해결 요구 (140건)

- 재개발중인 천동 4블럭, 5블럭에 3,400명이 입주 예정으로, 현재 ○○초로 입학하게 되면 학급당 33명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됨
- ○○초 입학 예정을 두고 있는 학생 수를 계산하여 모듈러 방식이 아닌 학교 증축 등을 통하여 과밀학급 개선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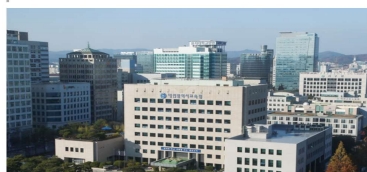
- **검토요청** 매년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입학 예정인 아동수를 볼 때 ○○초를 증축하여 과밀학급 개선을 해야 됩니다. 현재 모듈러방식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컨테이너에 아이를 등교시키고 싶겠습니까? **학교가 증축 되고 아이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** (2.21., 대전광역시교육청)

【 주요 언론보도 】

[단독] "내년 입주 앞뒀는데" 천동 초 과밀학급 우려 현실화

▲ 이일세 기자 | © 승인 2023.02.15 17:16

내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3.2명...과밀 기준 넘어서
실제 추가인원 더 많을 것이란 전망에 지역민 걱정 ↑



<충남일보(2023.2.15.)>

"6000세대 입주하는데 학교가 없다"... 천동지구 초중학교 신설 문제 급부상

▲ 이정아 기자 | © 승인 2021.09.27 17:22

신흥SK뷰, 리더스시티 등... 천동지구 잇따라 개발
"이미 과밀인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신설도 시급"



<충남일보(2021.9.27.)>



【영커멘트】

원도 설계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, 곳곳에서 이미 선도시공으로 한창되고 있음.

<TJB 대전방송(2022.4.20.)>

알림판

1.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

‘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’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(www.pias.go.kr)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,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,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.

<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>

페이지	제목	민원번호	소관기관
3P	대전○○초 학생 과밀문제 해결 요구	1AA-2302-0649017	대전광역시 교육청

2.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·제안 및 외부게시판·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(AI)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(www.pias.go.kr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민원업무 기관 담당자,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www.pias.go.kr(업무망)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‘사용자 계정신청 안내’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✓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(070-4108-3625)로 문의 요망